

〈종려주일〉

■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 *송 영 / 찬 양 대
- *영 광 송 / 1장
- *성시교독 / 129.종려주일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속 9:9-10).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마 21:9).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88장

대표기도 / (1부) 윤진태 안수집사 (2부) 이상혁 장로

헌금봉헌 / 51장 (1절)

성경봉독 / **마가복음 11:1~11**

찬 양 / (2부) 시온찬양대

말 씬 /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 전종남 목사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성 찬 식 / 149장 (고전11:23~26)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노래 / 620장 (1절)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한마음 오후예배〉

■ 오후 2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한마음으로 찬양, 351장 기 도 / 김현지 청년

성경봉독 / **사무엘상 17:39~54**

말 씬 / **“막둥이가 쓰아올린 작은 돌”** / 심상현 목사

광 고 / 이우진 청년부 회장 축 도 / 전종남 목사

■ 저녁 7시 30분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212장, 180장.

성경봉독 / 디모데전서 6:11~16

말 씬 / **“너 하나님의 사람아!”** / 전종남 목사

(You, man of God!)

■ 주일~금 새벽 5시

■ 저녁 8시 40분

마태복음 강해 / 전종남 목사

인도 / 심상현 목사

다음 주간 기도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이기숙 집사	윤결태 장로	김영덕A 집사

예배 위원

3월	1부	2부
안내	문미경	최승태 김영덕B 유경순
헌금	강현주	최영종 김영화 우말순 전복희

헌금자 명단

(온라인 헌금 **농협 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십 일 조	김명순 김신영 김춘예 윤결태(김연주) 운성태(강현주) 이옥미 무명
감사헌금	전종남(최경애) 김명순 김선정 김순천(연윤희) 노상현(이정숙) 문상필 심상현 유병용(황하연) 유진원(유예원) 윤성태(강현주) 윤진태(이기숙) 윤태오(김현아) 이상혁(송미숙) 이옥미 전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홍우표(윤명란) *자녀소원: 김성학(류윤영) 김형문(신승희)
선교헌금	윤결태(김연주) 3여
구제헌금	*구역헌금: 1, 4, 5, 10구역.
교육헌금	김춘자 윤결태(김연주) 이옥미
주일헌금	한희숙 *부서헌금: 유초-중고

지난주일 오전예배 설교요약 (3.22.)

쓴 물을 단 물로 바꾸시는 반전의 은혜 (출15:22~27)

전 종 남 목사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맛본 후, 사흘 만에 마주한 ‘마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기대했던 샘물이 마실 수 없는 ‘쓴 물’로 변했을 때, 이스라엘의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쓴 물을 단 물로 바꾸시는 ‘반전(反轉)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원망과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24절).

마라의 쓴 물 앞에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원망’은 단순한 불평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표현이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전염성을 가집니다. 불과 사흘 전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은 당장의 어려움 앞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원망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마음만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는 원망 대신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2.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25절).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음은 절박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신앙고백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곁에 있던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를 샘물에 던지자, 쓴 물이 단 물로 변했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 인생의 쓴 물에 던져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고난의 현장에 이미 예비된 해결의 열쇠를 찾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3.하나님은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셨습니다(27절).

마라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열두 샘과 일흔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풍성한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마라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뒤에는 반드시 회복의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The best is yet to come)”는 믿음으로,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엘림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인생의 마라를 지나고 있습니까? 원망을 멈추고, 십자가를 붙들며 부르짖으십시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쓴 물 같은 인생을 단 물로 바꾸시고, 엘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